

# GS칼텍스, 죽을 힘 다해 매진하라!

허동수 회장, 무사안일은 발전에 치명적 ... 고도화·유전개발 매진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임직원들을 향한 <공격경영>을 주문해 주목된다.

2007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국내 정유 2위의 위상에 걸맞은 영업이익 창출과 회사 비전인 <아시아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종합에너지 서비스 리더>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GS칼텍스에 따르면, 허동수 회장은 최근 내놓은 <이달의 회장 메시지>를 통해 “말은 바 영역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죽을 힘을 다해 악착같이 매진해야 한다”며 강한 톤으로 임직원들의 분발을 독려했다.

특히, 종영된 TV드라마 <주몽>을 예시하면서 “동명왕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구려를 열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처음 세웠던 목표는 누구나 같을 수 있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광활한 영토 위에 민족중흥을 아로새겼던 고구려 건국이념과 같은 원대한 비전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누구 한명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든 현장에서의 철저한 직무수행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경쟁기업에 밀리고 있는 고도화 설비와 관련해 2007년 하루 5만5000배럴의 제2 고도화설비 조기 가동과 제3 고도화설비 계획 추진, 해외유전 개발사업 강화 등 공격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합심단결하고 노력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중질유를 분해해 휘발유나 등·경유를 제조하는 고도화설비는 정유기업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허동수 회장은 “실수, 혹은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무사안일한 태도가 말은 바 업무에서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자, 일을 그르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 만큼 내 이름 석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메시지를 맺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17>